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반도체 낙폭 회복과 순환매 확산, 전악후강 KOSPI

-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에 급락 출발, 기타법인 매수에 낙폭 만회
- 대이란 제재 강화 속 유가 진정, TGA 기대에 금리 하락
- 반도체 숨 고르기, 비반도체 업종으로 순환매 확산 지속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2Q26 Review] 하나머티리얼즈: 너무 싸다

- 실리콘 음극재 신사업 우려는 과도, 무리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생각.
- 반도체 사업의 강력한 이익 성장 가치가 주가에 추가 반영될 필요.
- 목표주가는 괴리율을 반영하여 하향하나, 매수의견 유지.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반도체 낙폭 회복과 순환매 확산, 전약후강 KOSPI

-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에 급락 출발, 기타법인 매수에 낙폭 만회
- 대이란 제재 강화 속 유가 진정, TGA 기대에 금리 하락
- 반도체 숨 고르기, 비반도체 업종으로 순환매 확산 지속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에 급락 출발, 기타법인 매수에 낙폭 만회

중국 낸드 1위 기업 YMTC의 모회사인 창장춘추홀딩스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커황판 IPO를 위한 투자설명서를 공식 제출. 이전 CXMT 상장과 마찬가지로 중국 메모리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가 유입되며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

전일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5.8%), 샌디스크(-6.5%), 엔비디아(-2.9%) 등 주요 반도체주가 하락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 여기에 삼성전자 주주환원에 대한 실망감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이 이어지며 반도체 업종은 하락 출발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타법인 순매수가 이어지며 낙폭을 만회. 금일 기타법인은 SK하이닉스를 약 1조원, 삼성전자를 약 5천억원 순매수. 주주환원책 발표 이후 누적 기타법인 순매수는 SK하이닉스가 19일 이후 약 4.3조원, 삼성전자가 21일 이후 약 1.1조원 수준

반도체: 삼성전자(+0.0%, 저가 -4.7%), SK하이닉스(+0.4%, 저가 -6.8%)

대이란 제재 강화 속 유가 진정, TGA 기대에 금리 하락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 작전에 나선다고 발표. 이란과 금융 거래를 이어가는 모든 국가에 2차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며, 제재 대상에는 디지털자산, 첨단 기술, 금, 항공, 해운 분야 등이 포함. 다만 해당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에 제재를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 그럼에도 WTI 선물은 85.1달러로 소폭 하락하며 진정세

한편 미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자금 조달에 TGA를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 TGA 활용 시 신규 국채 발행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시장에 유통되는 장기채 물량도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 미국채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4.71%, 5.24%로 하락하며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

반도체 숨 고르기, 비반도체 업종으로 순환매 확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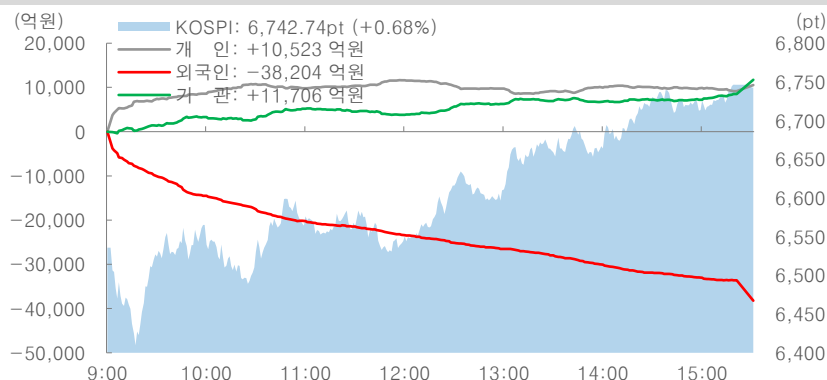
반도체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비반도체 업종으로 순환매 확산. 미국 정부가 한국에 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를 제안했다는 소식에 원전 업종 강세 뚜렷

원전: 두산에너지빌리티(+10.6%), 한전기술(+20.3%), 현대건설(+14.9%)

소비재: 에이피알(+7.6%), 한국콜마(+4.7%), 아모레퍼시픽(+2.4%)

철강: 고려아연(+6.2%), 현대제철(+7.5%), 풍산(+6.6%), 세아베스틸지주(+6.2%)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하나머티리얼즈 (166090)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0,0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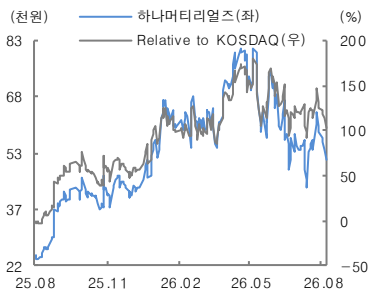
(26.08.24)

50,900

반도체업종

KOSDAQ	813.33
시가총액	1,00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7%
자본금(보통주)	1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81,100원 / 23,6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45억원
외국인지분율	20.49%
주요주주	하나마이크론 외 2 인 44.30% Tokyo Electron Limited 13.7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9	-37.2	-17.9	115.7
상대수익률	-14.4	-10.4	17.6	107.5



너무 싸다

- 실리콘 음극재 신사업 우려는 과도, 무리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생각.
- 반도체 사업의 강력한 이익 성장 가치가 주가에 추가 반영될 필요.
- 목표주가는 괴리율을 반영하여 하향하나, 매수의견 유지.

과도한 저평가, 적극적 매수 접근이 필요한 시점

목표주가는 괴리율을 반영하여 90,000원으로 하향 (Target P/E: 22배에서 18배로 하향)하나, 과도한 저평가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음. 실리콘 음극재 신사업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며, 현 주가는 반도체 사업의 성장 가치를 과소 평가. 당사 이익 전망 기준 2027년 P/E는 9.8배에 불과. 1) 신사업에 대한 오해 해소, 2) 반도체 사업의 강력한 이익 성장 등이 주가의 반등을 이끌 것.

1. 실리콘 음극재 신사업: 무리한 사업 확장이 아니다

지난날, 시장은 2차전지 관련 사업 부진을 다수 목격. 이에, 신사업에 대한 초기 반응은 부정적. 당사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생각.

1) 무리한 사업 확장이 아니다

주요 고객사향 Sample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 이에, 고객 및 응용처 확보 가시성이 크게 증가. 전기차, 로봇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부터 매출액이 본격 발생할 것으로 전망.

2) 수익성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실리콘은 그룹 및 기업 차원에서 자체 조달 가능한 구조. 반도체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하기에 실리콘 관련 원가 부담은 제한적. 그렇다면, 신사업의 추진이 전사 수익성의 훼손을 이끌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

2. 반도체 부품 사업: 눈높이를 높여야

영업이익은 2026년 1,045억원 (OPM +27%)에서 2027년 1,387억원 (OPM +28.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컨센서스를 각각 9%, 13% 상회하는 수준. 이익의 양과 질이 동반 개선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 극심한 반도체 공급 부족에, 주요 고객사들은 설비투자과 가동률을 상향조정 중. 이는 Before Market (정품) 업체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변화.

– 고객 및 제품 다변화 효과 기반 이익의 질도 동반 개선될 것.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A	2026F	2027F
매출액	234	252	273	386	485
영업이익	41	43	50	104	139
세전순이익	40	41	51	109	142
총당기순이익	34	32	38	82	108
지배지분순이익	34	32	38	82	108
EPS	1,731	1,606	1,940	4,165	5,446
PER	29.0	14.3	22.2	17.1	13.1
BPS	20,235	17,894	23,445	33,305	38,459
PBR	2.5	1.3	2.2	1.5	1.3
ROE	9.8	8.4	9.4	14.7	15.2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하나머티리얼즈,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